

## 파룬궁을 비방하는 각종 거짓말에 대한 해석 (런재--1)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의존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거짓말과 폭력이다. 박해진상이 끊임없이 폭로됨에 따라 폭력은 점차 암암리로 옮겨져 가고 있으나 거짓말은 도리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강화되었다. 중공의 거짓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박해를 정시하여 法輪大法(파룬따파)를 똑바로 인식하는데 장애를 받고 있다. 중공의 거짓말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분석해 보니 7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 첫째: 극도의 속임수인 '구원류(挽救类)' 형

중공은 정부차원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수련생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대면적으로 잔혹하게 박해하는 것을 두고 도리어 파룬궁 수련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같은 거짓말로 대량의 중국인들을 속여 왔는데 예를 들면, 무슨 '미신'이요, '병이 있어도 약을 먹지 않는다'느니 '자살' 등은 모두 전형적인 속임수 수법이다. 중공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짓말에 쉽게 속을 수 있다.

### 둘째: 사람을 위협하는 '위해류(危害类)'형

사악한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 탄압한다는 논리는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사실을 중시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박해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중공은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 "파룬궁을 런마하면 남을 해친다"는 거짓말을 만들어 냄으로써 수련생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 대중으로부터 승인받으려 한다. 마치 파룬궁을 '금지(取締)'하는 것은 수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점"이 있고, "수련자는 위해성을 크게 가침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이른바 "살인"하고 "독약을 넣고", "사회 치안을 어지럽힌다"는 등의 거짓말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

### 셋째: 사람을 미혹시키는 '조종류(操纵类)'형

파룬궁 수련생과 접촉하여 진상이 명백해진 사람에게는 그들이 본 파룬궁 수련생은 모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1, 2 류의 거짓말로 효과를 보기 아주 어렵다. 그래서 중공은 파룬궁을 "조종 받는 단체"로 먹칠하고는, 수련생들이 "남에게 조종 받고 있다"면서 모욕한다. 즉, 중공은 파룬궁 수련생이 "남에게 마음대로 조종당하는" 사람들이라서 곧 위험하게 변할 것이라며 사람을 미혹하는 작용을 일으켰다. 이른바 "신문사를 포위공격", "중남해를 포위 공격", "다른 심보를 품었다", "치안을 어지럽혔다" 등등은 모두 이런 거짓말에 해당한다.

## 대만 고웅에서 대시위행진하여 2 천 5 백만 중공퇴출을 성원

2007 년 8 월 11 일 오후 4 천여명의 대만민 중들이 고웅(高雄)에서 대시위행진하여 2 천 5 백만명의 중공에서의 퇴출을 성원했다.

(사진참조) 그들은 퇴당조류를 세계로 전파하여 세인들로 하여금 중공의 사악한 진면모를 똑똑히 알게 했다.



## <철도일>축제의 시위행진에서 파룬궁이 6 개 상을 탔다

미국 워싱턴 <철도일>축제 행진에 참가한 파룬궁대오가 꽃마차에 5 조 공법을 전시하여 <심판의 선택: 1 등상>, <가장 훌륭한 꽃차상> 등 6 개 상을 탔다. (오른쪽 사진)



시위행진이 끝난후 많은 사람들은 파룬궁 학원한테로 몰려들어 진상을 료해했고 어떻게 파룬궁을 배우는가에 대해 문의했다.

## “덕”(德)의 내포

“덕”자는 “彳”, “十”, “目”, “一”, “心”으로 구성되었다. “彳”은 사람의 다리와 발을 대표하며 사람의 동작과 행위를 의미한다. “十”은 시방 세계이고 “目”은 눈이며 “一”은 만물의 기원이며 원천이고 “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하여 “十目”은 온 하늘의 눈이 사람의 마음을 내려다 본다는 뜻이다.

고대사람들은, 누가 모든 말든 범률추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행위가 하늘땅에 떳떳이 대할수 있다면 곧 바로 진정한 덕이라고 정확히 이해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규범화했다. 그러나 중공의 무심론독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신의 눈은 번개와 같고>, <선악엔 보응이 있다.>는것을 모르고 있으며 암암리에 심지어 공개적으로 나쁜짓을 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전통적인 도적표준마저 잃어버렸으니 과연 한심하기 짝이 없다. 중화의 문명을 다시 부흥시키는 유일한 도경은 고대문화에 대해 다시 인식하고 덕을 중히 여기며 수련하는 전통문화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 당태종이 황충을 삼키니 천재(天災)가 사라졌다

당정관(唐貞觀) 2년(기원 628년)6월, 장안



부근에 가뭄이 몹시 들어 황충이 성행하여 백성의 곡식을 삼켜버렸다. 어느 하루 당태종은 화원에서 황충을 주어들고<량식은 백성의 생활 근본이니 너희들이 량식을 먹은것은 곧바로 나의 백성을 해친 것이다.백성들에게 착오가 있다하여 하늘에서 너희들을 내려보내어 징벌을 하여도 천자(天子)인 내가 책임을 다 하지 못한 탓이므로 백성에겐 죄가 없다.너

희들이 진정 령통하다면 응당 재해를 나에게 입혀야지 나의 백성을 해치지 말라.>고 정중이 맹세하면서 손에 든 황충을 삼키는 것으로 자신의 결심을 표명하려 하였다. 수행들은 태종이 황충을 삼키면 질병이 생길까 념려되어 그러지 말라고 말했다. 태종은 오히려 <난 하늘이 재해를 나에게 내리기를 바라는데 어찌 황충을 삼켜 병에 걸릴까 걱정되어 도피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태종이 하늘에 명을 청한 행위는 하늘을 감동시켜 얼마 되지 않아 황충재해는 점차 소실되었다. 이후 태종이 집정한 몇십년동안에 황충재해는 더는 생기지 않았다.

## 홍콩 반산관경대에 온 대륙관광객들은 진상을 료해하고 중공에서 퇴출

홍콩에 매일 수천수만의 대륙관광객들이 오는데 홍콩반산관경대(香港島半山观景台)에 최근 반년동안 이미 5 천명 대륙관광객들이 진상을 료해하고 즉시 중공관련조직에서 퇴출했다.



왼쪽 사진은 대륙관광객들이 진상전람을 보고 있는 장면이다.

## 퇴당전단지를 붙혀놓으니 어린이 손에 난 종양이 소실되었다

2007 년 6 월 중순 호북성 무혈시(武穴市)에 사는 8 살난 남자애 진생(가명)은 사회구역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뜯어 땅에 던진 퇴당전단지를 한장한장 주어 모래와 먼지를 깨끗이 닦아버리고 벽에다 되붙혀 놓았다. 2,3 일 지난후 진생의 두손에 가득 났던 콩알만한 종양들이 기적마냥 소실되었다.



## 중국공산당을 량해할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당신들이 민주를 주장하는 이상 은혜로운 당인 공산당을 량해해야 하며 특히 공산당을 비평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출했다. 어떤 사람은 문화대혁명에서 처참한 박해를 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도 문화대혁명이 결속되고 박해가 정지되자 생각밖에도 중공을 량해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경하게 말한다면 마비이고 흐리멍텅한 것이다. 마치 랍치당한 피해자가 랍치하는 강도를 사랑하는 격이다. 중하게 말한다면 배반인 것이다. 마치 도적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쁜짓을 하는 것과 같다. 살인범에 대한 량해는 곧 바로 피해자에 대한 무정이다. 어떠한 량해든지 막론하고 범죄자가 죄를 승인하고 참회하며 사과하고 배상하는 기초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중공은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짓고도 승인하지 않고 참회하지도 않으며 사과하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고 도리어 《6.4》대도살과 법륜공탄압, 위권인사들에 대한 박해를 감행하고있다. 어찌 공산당을 량해할수 있겠는가? 공산당을 량해하는 것은 바로 의심할바없는 천고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